

4월 17일(월) / 민28-30장

▶**내용요약:**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자세히 기록한다. 29장은 이전 장의 계속으로 7월에 드리는 제사 규례들을 볼 수 있는데 주요 절기로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다. 30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 이에 더하여 서원에서 예외적 규정을 알려준다. 딸의 서원은 아버지의 허락이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는 무엇인가?(28장)

▶**생각하기:** 29장에서는 7월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 7월에 백성들이 지키는 주요한 3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물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7월이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의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면서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시간까지** 알고 계시고 고려하시는 분이다.

4월 20일(목) / 신1-3장

▶**내용요약:**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고함이 주된 내용이다. 1장은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회고하면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한다. 2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38년간의 요약되어 있다. 3장에서는 요단 동쪽의 바산과 아모리 왕국을 정복한다.

▶**질문:**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부탁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3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함으로써 광야생활을 하면서 여러 족속들이 사는 땅을 지나치게 된다. 그런데 이 땅들을 정복하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4월 23일(주일) / 신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하나님이 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시 십계명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지속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대하신다.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큰일을 기록한다. 이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겸비하고 삼가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은 그리스십 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축복과

4월 18일(화) / 민31-33장

▶**내용요약:** 31장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란과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이 기록된다. 큰 승리를 거두지만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기에 책망을 받는다. 32장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요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도 땅을 얻은 후에야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33장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요단까지 도착한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의 노정이 기록된다.

▶**질문:** 모세의 형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는 몇세였는가?(33장)

▶**생각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생활을 하면서 요단에 도착하기까지 자세한 노정이 기록된다.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는지와 함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묵묵히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전도자들**이 되자!

4월 21일(금) / 신4-6장

▶**내용요약:**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두번째 교훈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야할 것을 권고한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스라엘의 태도와 자세를 준비시키는 말씀이다. 5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율법 이전에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6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강조한다. 즉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알려준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 ) 하나님 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4장)

▶**생각하기:**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31절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두 모습이 상반되어 보인다. 그런데 그 질투와 자비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저주의 길 중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다. 12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파괴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하며 피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신다. 이어 거룩한 식사에 관한 규례 등이 기록된다.

▶**질문:** OX로 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12장)

4월 19일(수) / 민34-36장

▶**내용요약:** 34장은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얻을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이를 위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세워진다. 35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48개 성읍들과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6개 성읍이 주어진다. 36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허락은 하지만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유지하고자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제한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 )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35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땅을 더럽히지 말도록 명령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35:34)고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거룩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은 거룩에서부터 시작된다!**

4월 22일(토) / 신7-9장

▶**내용요약:**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위해 결혼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한다. 8장은 광야생활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한다. 9장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자만이나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가나안에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질문:**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자 사십주 사십야를 머물렀던 산의 이름은?(9장)

▶**생각하기:**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여 왔느니라”(9:24)고 한다. 사실 하나님백성의 실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변호한다.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중보한 모세가 있었기에 광야의 여러 위기에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생각하기:** 하나님은 그리스십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함으로 11장 26절 말씀대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하신다. 복되거나 저주스런 삶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아주 쉬워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